



#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 Briefing on Construction Engineer Trends



[www.cepik.re.kr](http://www.cepik.re.kr)

주소  
0609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TEL 02-6204-4332

본 자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  
(유동영 선임연구원, [dyyoo@cepik.re.kr](mailto:dyyoo@cepik.re.kr),  
02-6204-4336)으로 연락바랍니다.

### 01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 해당 분기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

### 02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현황

- 등급, 직무, 연령, 성별에 따른 분석

### 03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04 건설기술인 재직 현황 및 특성

- 등록된 건설기술인 중 현재 재직상태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연령, 학력, 업태 등을 분석

### 05 고령화 관련 건설기술인 현황 및 시사점

-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 및 연령별 분포 현황

- 연령별 건설기술인 업종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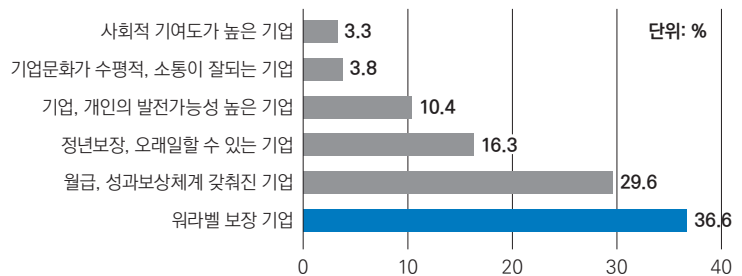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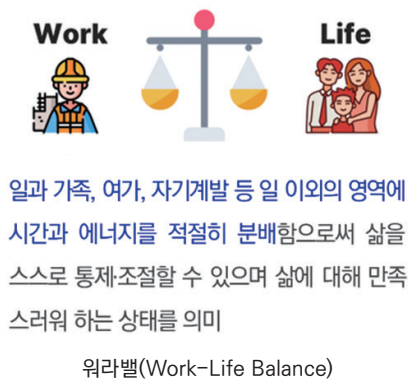
본 발간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기술인 통계자료'이며, 각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2024년 2분기(‘24.4.1.~6.30.)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 등급 및 직무 분야에 대한 분류기준은 해당 건설기술인이 '경력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한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결과에 따름.
- ▶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이란 최초 경력신고를 통해 초급 등급이 발생한 건설기술인을 뜻함.
- ▶ '재직 건설기술인'이란 해당 분기 재직상태인 자를 뜻하며,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업태를 분류함. 건설기술인이 속한 기업이 복수인 경우 (종합건설 > 전문건설 > 주택건설 > 건축사사무소 > 감리전문회사 > 엔지니어링 > 측량업 > 기술사사무소 > 안전진단전문기관 > 품질검사전문기관 > 기타건설업 > 기타) 순으로 분류함.

# 01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 1. (사회/문화) MZ 세대, 연봉보다 워라밸 추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5월 16일 여성·청년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건설기술인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음. 지난해 협회가 최초로 시도하며 호응을 얻은 세대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워라밸 실현을 주제로 세대별 소통을 이어갈 계획임.
-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건설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사양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패턴에 맞는 여성·청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협회는 건설기술인 워라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워라밸지수 개발·활용 등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과 적극 연계해 건설산업 역할 재정립과 여성·청년 등 우수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임.



자료: 대한전면건설신문(2023.04.), 한국경제인연합회 설문결과

청년층이 원하는 직장

## 2. (사회/문화) MZ 세대, 건설산업 이미지“부정적”인식 심각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2024)에서 일반 국민 중 청년층인 20대~40대인 MZ 세대를 대상으로 10년(2014~2024) 동안의 건설산업 이미지(총괄적인 이미지, 세부적인 이미지) 인식의 추이 등을 분석함.
- 건설산업의 세부 이미지는 전문가 조사 및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설산업 이미지 키워드(① 국가 및 사회 기여도 : 경제 발전, 국토 개발, 사회 공헌, 정책/제도, ② 기술력 및 도덕성 : 첨단 기술, 성실 시공, 기업 윤리, ③ 종사자 및 근로환경 : 종사자, 근로환경)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 **(총괄적 이미지)** 과거 10년 전과 현 시점에서의 건설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총괄적인 이미지는 미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나(건설산업 : 평균 2.76점 → 평균 2.88점, 건설산업 종사자 : 평균 2.69점 → 평균 3.04점), 대체로 MZ세대가 생각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인식에 가까운 걸로 판단됨.
- ▶ **(세부적 이미지)** 과거 10년 전보다 현재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부분은 국가 및 사회 기여도의 경제 발전에서 해외 건설 수주 항목(-0.12점), 기술력 및 도덕성에서 친환경 건축(친환경 건설기술), 부실시공, 안전사고/재해발생 항목(각 -0.17점, -0.1점, -0.08점)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최근 건설산업 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023) 등과 연계하여 일반 국민 중 청년층이 생각하는 건설산업 내 세부적인 이미지(성실시공)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종합하였을 때, 부정적 항목에 해당하는 이미지 항목(부실시공, 안전사고/재해발생, 민원발생, 비리/뇌물, 담합, 부실경영, 환경파괴, 작업환경)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에도 부정적 인식으로 각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부정적 항목에 해당하는 이미지 항목의 평균값은 과거 2004년 1.81점에서 현재 2024년 2.19점으로 아주 미미하게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3. (교육) 2024년 건설기술인 교육 현황('24.6.30. 기준)

- 기관유형별 교육현황은 종합교육기관 93.8%, 전문교육기관 6.2%로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분야 중 기본교육이 21%, 전문교육이 79%의 분포를 보임.
- 원격교육 시간은 약 6,000시간으로 토목 1,445시간(24.1%), 건축 1,114시간(18.6%), 건설지원 874시간(14.6%), 안전관리 769시간(12.8%), 기계 616시간(10.3%), 환경 424시간(7.1%), 조경 359시간(6.0%), 도시교통 224시간(3.7%), 전기·전자 128시간(2.1%), 광업 38시간(0.6%) 순으로 운영되었음.

### 4. (정책)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입찰제도 개선(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 및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겠다고 제도 개선(안)을 발표함. 통상 300억 이상의 공사와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 및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
-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을 새만금 국제공항 터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 (사업 개요) 발주청 서울지방항공청 / 5,609억 원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 ▶ (심의 일정) 심의위원 선정(5.21) 후 설명회, 기술검토 등을 거쳐 설계 평가(5.30~31)

### 5. (안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건설업체 역량 강화 필요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5월(5.23~5.31, 4개 업체) 및 6월(6.13~6.26, 7개 업체)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대응역량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수행함.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2024.1.27.)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됨.
- 협회 내 안전관리기술인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축하여 재능기부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례소개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 이론 교육 및 주요 사례 △건설기술인의 법적 의무 사항 안내 등 중소 업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함.
- 향후, 전국단위(대전, 부산, 광주 등)로 확대할 예정이며, 교육과 더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6. (산업)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기업의 혁신방향으로 건설산업의 구조 변화와 건설기업의 혁신 환경 진단,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기업의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함.

- ▶ (건설산업의 구조변화) 민간건설시장의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건설시장 확대 지속(2010년 이후 14년 동안 연 평균 6.6% 성장하여 공공건설수주의 2배 성장), 2020년 이후 건설시장의 성장은 주택부문(2020년 이후 주택시장 80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이 견인함.
- ▶ (건설기업의 혁신 환경 진단) 기업 혁신이 기반이 되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상황으로 최근 기술특허 출원 활동건수는 감소세이며, 기술혁신의 핵심분야인 4차 산업혁명기술의 활용도도 2017년 활용도 5.1% 대비 2022년 활용도는 7.4%로 여전히 낮은 상황(2%p 증가)임.
- ▶ (건설기업의 혁신 방향) 건설기업에 대한 기존과 신규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을 추진해야하며, 사업관리 혁신, 경영관리시스템 개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함.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외감기업의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전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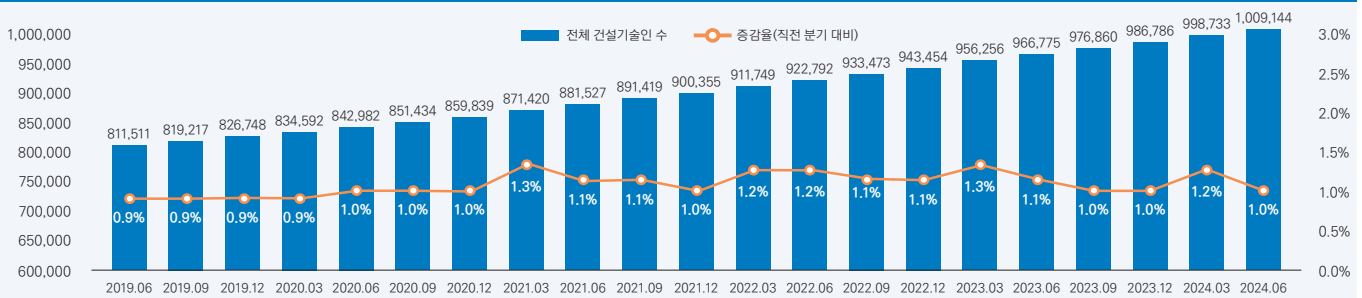
- ▶ (건설외감기업 현황) 외감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산업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외감기업의 60%수준이며,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 외감기업의 85%를 차지함. 또한, 건설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함.
- ▶ (한계기업 분석) '23년 기준을 외감기업의 약 25% 업체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종합건설업체가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적자기업이 더 증가하였음.
- ▶ (전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코로나 펜더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역과 기술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를 보존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함.

# 02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 1. 2024년 2분기 기준(6.30.), 전체 건설기술인 1,009,144명, 직전 분기 대비 1.0% 증가

-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수는 1,009,144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411명 증가(+1.0%)하였으며, 건설기술인 수는 직전 분기 대비 최소 0.9%에서 최대 1.4%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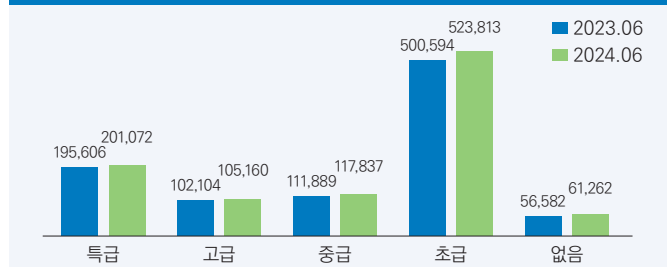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건설기술인 현황 및 증감



## 2. 초급 건설기술인 523,813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51.9% 차지

- 2024년 2분기 기준, 등급 보유 건설기술인은 947,882명(93.9%)으로, 그중 초급 건설기술인이 523,81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51.9%)을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모든 등급의 건설기술인 수는 증가하였으며, 등급 없음(+8.3%), 중급(+5.3%), 초급(+4.6%), 고급(+3.0%), 특급(+2.8%) 순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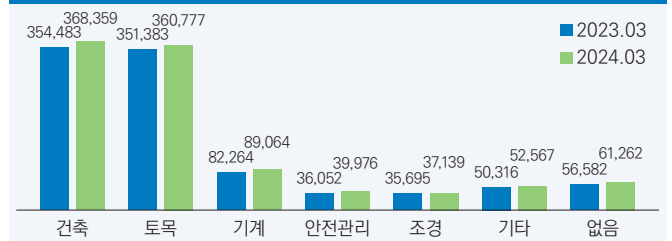
〈그림 2〉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현황



## 3. 건축 및 토목 건설기술인 729,136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72.3% 차지

- 2024년 2분기 기준, 건축 및 토목 분야가 각각 368,359명, 360,77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72.3%)을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모든 분야의 건설기술인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지원(+11.2%), 안전관리(+10.9%), 기계(+8.3%) 분야의 건설기술인 수 증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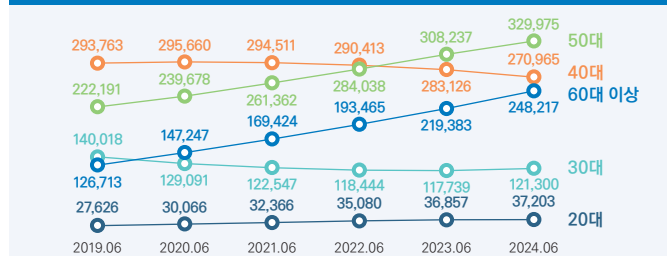
〈그림 3〉 건설기술인의 직무별 현황



## 4. 40~50대 건설기술인 600,940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59.6% 차지

- 2024년 2분기 기준, 40~50대 건설기술인은 600,940명(59.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반면 20~30대 건설기술인은 158,503명(15.7%)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건설기술인 수는 증가하였으며, 60대 이상(+13.1%), 50대(+7.1%), 30대(3.0%), 20대(0.9%) 순으로 증가함. 반면, 40대의 경우 -4.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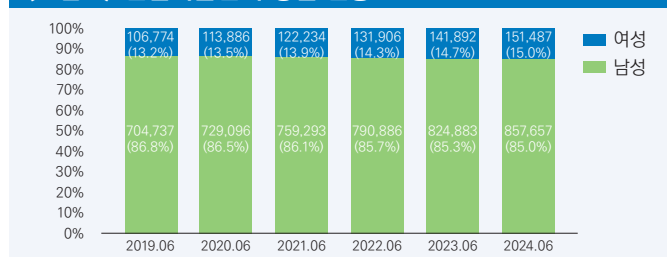
〈그림 4〉 건설기술인의 연령별 현황



## 5. 여성 건설기술인 비중 증가세 지속

- 남녀 건설기술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여 각각 857,657명(+4.0%), 151,487명(+6.8%)을 기록함.
- 여성 건설기술인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p 상승하여 전체 건설기술인 대비 15.0%를 기록함.

〈그림 5〉 건설기술인의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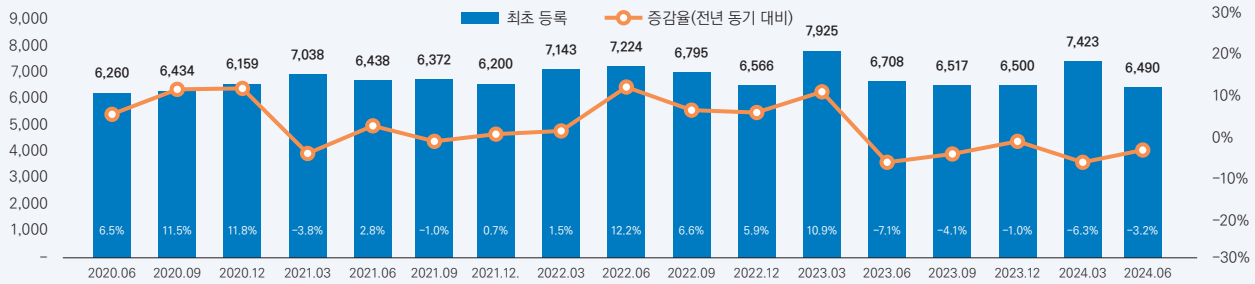
# 03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 1. 2024년 2분기 기준(6.30.),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은 6,490명,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

-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은 6,4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함.
- 2023년 6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최소 -1.0%에서 최대 -7.1%로 꾸준한 감소추세가 나타남.

〈그림 6〉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현황 및 증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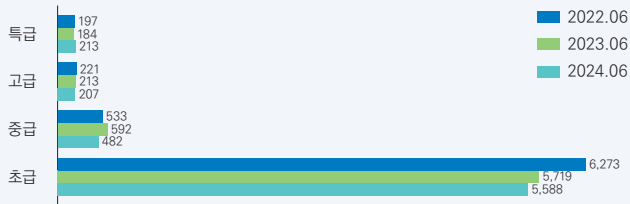


## 2. 초급 건설기술인 5,588명으로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86.1% 차지

- 2024년 2분기 기준,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 수는 6,490명으로 이 중 초급 건설기술인이 5,58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86.1%)을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등급에서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수는 감소하였으며, 중급(-18.6%), 고급(-2.8%), 초급(-2.3%) 순으로 감소함. 반면, 특급은 +15.8% 증가함.

〈그림 7〉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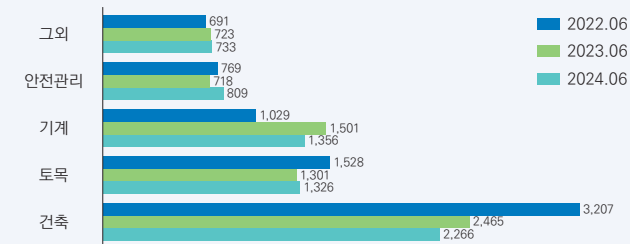


## 3. 기계, 안전관리 분야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유입 증가

-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의 직무 분야는 건축(2,266명), 기계(1,356명), 토목(1,326명), 안전관리(809명) 순임.
- 전년 동기 대비, 건축 및 기계 분야는 각각 8.1%, 9.7% 감소하였으나, 토목 및 안전관리 분야는 각각 1.9%, 12.7% 증가함.

〈그림 8〉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직무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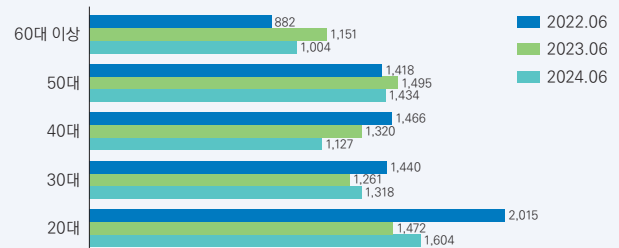


## 4.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최초 등록 인원 감소

- 2024년 2분기 기준, 20대(1,604명), 50대(1,434명), 30대(1,318명), 40대(1,127명), 60대 이상(1,004명) 순으로 최초 등록함.
-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수가 감소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의 경우 14.6%로 큰 폭으로 감소함. 20대 및 30대의 경우 각각 9.0%, 4.5% 증가함.

〈그림 9〉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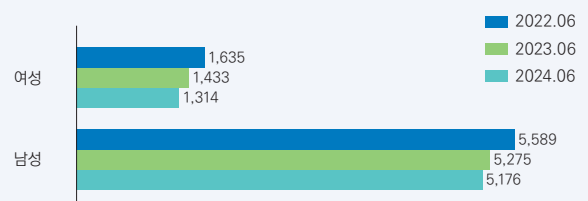


## 5. 최초 등록 여성 건설기술인 비중 20.2% 차지

- 2024년 2분기 기준,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5,176명, 1,314명으로 각각 79.8%, 20.2%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 수는 남성과 여성 각각 99명(-1.9%), 119명(-8.3%) 감소함.

〈그림 10〉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성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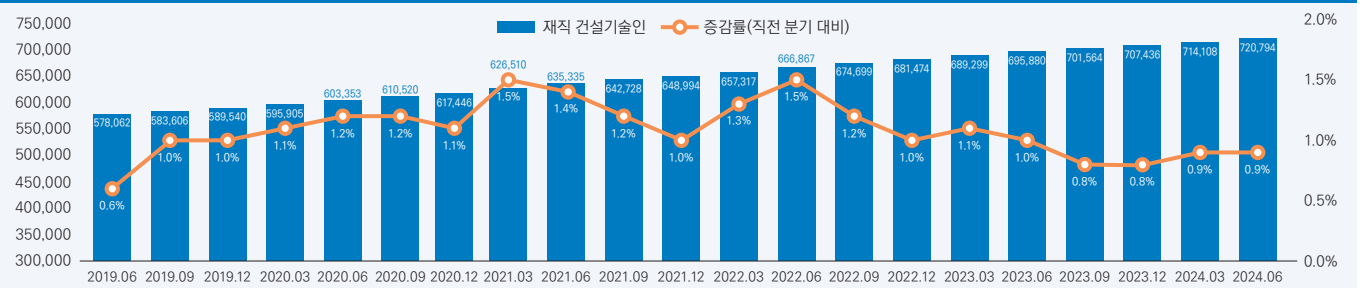


# 04 건설기술인 재직 현황 및 특성

## 1. 2024년 2분기 기준(6.30.), 재직 건설기술인은 720,794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0.9% 증가

-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중 재직자는 720,794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6,686명 증가(+0.9%) 하였으며, 전체 건설기술인 중 약 71.4%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분기별 재직 건설기술인 현황 및 증감



## 2.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은 551,065명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76.5% 차지

- 업종별 비중은 종합건설업(41.0%) > 전문건설업(35.5%) > 주택건설업(4.8%) > 감리전문회사(2.8%) > 건축사사무소(2.7%) > 엔지니어링(1.0%) > 품질검사기관(0.9%) > 안전진단기관(0.8%) > 측량업(0.4%) > 기술사사무소(0.2%) > 기타건설업(0.1%) 순으로 나타남.

## 3. 등급별 재직 건설기술인은 초급(46.6%) > 특급(23.2%) > 중급(12.7%) > 고급(11.7%) 순

- 초급 및 특급 재직 건설기술인이 각각 336,213명(46.6%), 166,905명(23.2%)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대부분을 차지함.

## 4. 50대 이상 재직 건설기술인은 415,694명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57.7% 차지

- 50대 및 60대 이상 재직 건설기술인은 각각 239,628명(33.2%), 176,066명(24.4%)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20대 및 30대 재직 건설기술인은 각각 29,666명(4.1%), 30대 90,791명(12.6%)에 불과함.

## 5.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재직 건설기술인이 526,841명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73.1% 차지

- 직무 분야별 재직자는 건축 267,334명(37.1%), 토목 259,507명(36.0%), 기계 61,530명(8.5%), 안전관리 28,703명(4.0%) 순임.

〈그림 12〉 재직 건설기술인의 업종별 현황 및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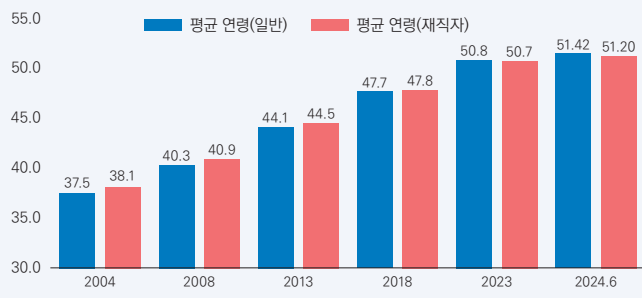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엔지니어링	감리 전문회사	건축사 사무소	주택 건설업	안전진단 기관	기술사 사무소	품질검사 기관	측량업	기타 건설업	기타	합계(명)	비율(%)
연령	20~29세	12,897	8,555	146	1,698	1,118	2,471	844	57	568	61	3	29,666	4.1%
	30~34세	20,290	13,361	320	1,574	1,008	3,015	964	77	736	167	15	44,312	6.1%
	35~39세	21,979	15,302	430	1,074	571	2,440	613	70	524	113	45	46,479	6.4%
	40~44세	37,358	27,732	864	1,753	731	4,226	771	159	698	265	44	81,310	11.3%
	45~49세	44,957	36,081	1,206	1,977	862	4,852	573	201	686	753	67	102,103	14.2%
	50~54세	54,385	48,053	1,427	2,721	1,402	5,101	703	251	1,043	576	106	129,082	17.9%
	55~59세	44,414	40,501	1,052	2,729	2,525	3,837	452	230	783	700	109	110,546	15.3%
	60~69세	47,500	52,695	1,506	4,991	8,118	6,073	501	508	1,088	327	85	138,529	19.2%
	70세 이상	11,377	13,057	459	1,625	2,946	2,556	197	170	462	50	13	37,537	5.2%
피임	기타	344	227	10	121	18	30	8	1	3	3	-	1,230	0.2%
	특급	73,592	31,739	933	11,279	13,652	13,534	1,644	818	2,686	1,178	78	166,905	23.2%
	고급	43,015	20,919	624	2,099	1,364	4,661	657	307	992	758	78	84,020	11.7%
	중급	45,120	30,315	841	1,242	622	3,366	673	106	714	423	83	91,346	12.7%
	초급	126,197	145,256	4,901	4,819	2,803	11,421	2,357	445	1,926	566	241	336,213	46.6%
직무	없음	7,577	27,335	121	824	858	1,619	295	48	273	90	7	42,310	5.9%
	토목	100,981	93,279	870	12,526	3,284	21,701	349	1,497	3,185	1,559	328	259,507	36.0%
	건축	131,989	80,498	5,154	1,951	11,322	2,416	4,259	64	2,389	747	94	267,334	37.1%
	기계	18,208	27,594	953	1,404	2,517	1,483	277	16	156	196	25	61,530	8.5%
	안전관리	17,038	6,126	129	447	373	943	88	15	370	54	10	28,703	4.0%
	그 외	27,285	48,067	314	3,935	1,803	8,058	653	132	491	459	30	103,720	14.4%
	남자	256,017	214,190	6,011	18,331	17,531	29,688	4,354	1,567	5,771	2,766	474	618,872	85.9%
성별	여자	39,484	41,374	1,409	1,932	1,768	4,913	1,272	157	820	249	13	101,922	14.1%
합계(명)	295,501	255,564	7,420	20,263	19,299	34,601	5,626	1,724	6,591	3,015	487	70,703	720,794	-
비율(%)	41.0%	35.5%	1.0%	2.8%	2.7%	4.8%	0.8%	0.2%	0.9%	0.4%	0.1%	9.8%	100.0%	-

# 05 고령화 관련 건설기술인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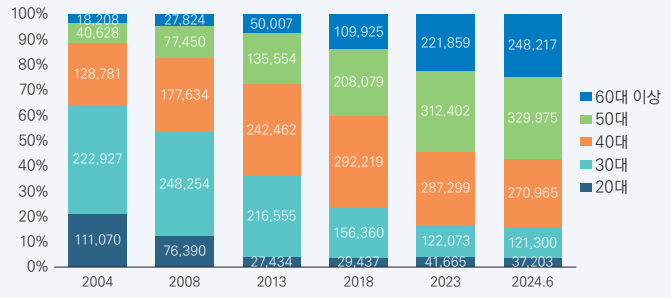
## 1. 연도별 건설기술인 평균연령 및 연령분포 변화

- 2024년 2분기 기준(6.30.)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2004년: 37.5세 → 2024년: 51.4세),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음(2004년: 38.1세 → 2024년: 51.2세).
- 20년 전(2004년)에는 20~40대가 전체 건설기술인의 88.4%(462,778명)를 차지하였지만, 현재(2024년 6월 기준)의 20~40대 건설기술인은 전체 건설기술인의 42.6%(429,468명)에 불과함. 이와는 상반되게, 20년 전(2004년)에는 50대 이상이 전체 건설기술인의 11.2%(58,836명)에 불과했지만, 현재(2024년 6월 기준)의 50대 이상 건설기술인은 전체 건설기술인의 57.3%(578,192명)로 급증하였음.
- 이는 매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등록을 통해 유입된 건설기술인의 증가세보다 기존 건설기술인이 고령화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며, 최초 등록되는 건설기술인마저 50대 이상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건설기술인 고령화 현상은 지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3〉 연도별 건설기술인 평균연령 변화



〈그림 14〉 연도별 건설기술인 연령 분포 변화



## 2. 연령별 건설기술인 업종 분포 현황

- 2024년 2분기 기준(6.30.)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비율이 평균 75.8%를 차지하나, 60대 이상 건설기술인의 경우 전문건설업에 종사 중인 건설기술인 수가 종합건설업보다 더 많은 것이 특징임.
- 종합건설업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 차지했으나, 60대 이상 건설기술인의 경우 33.4%만 종합건설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 37.3%가 재직 중인 전문건설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건설업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며(20대: 28.8% → 60대 이상: 37.3%),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또한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함.

〈그림 15〉 연령별 건설기술인의 업종별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순위	종합건설업 (12,897명, 43.5%)	종합건설업 (42,269명, 46.6%)	종합건설업 (82,315명, 43.8%)	종합건설업 (98,799명, 41.2%)	전문건설업 (65,752명, 37.3%)
2순위	전문건설업 (8,555명, 28.8%)	전문건설업 (28,663명, 31.6%)	전문건설업 (63,813명, 34.8%)	전문건설업 (88,554명, 37.0%)	종합건설업 (58,877명, 33.4%)
3순위	엔지니어링 (2,471명, 8.3%)	기타 (6,103명, 6.7%)	기타 (16,597명, 9.0%)	기타 (26,528명, 11.1%)	기타 (19,762명, 11.2%)
4순위	감리전문회사 (1,698명, 5.7%)	엔지니어링 (5,455명, 6.0%)	엔지니어링 (9,078명, 4.9%)	엔지니어링 (8,938명, 3.7%)	건축사사무소 (11,064명, 6.3%)
5순위	기타 (1,248명, 4.2%)	감리전문회사 (2,648명, 2.9%)	감리전문회사 (3,730명, 2.0%)	감리전문회사 (5,450명, 2.3%)	엔지니어링 (8,629명, 4.9%)
	⋮	⋮	⋮	⋮	⋮
합계	29,666명(100%)	90,791명(100%)	183,413명(100%)	239,628명(100%)	176,066명(100%)

〈주의사항〉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자체 연구성과로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처: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대표전화: 02-6204-4332

홈페이지: <http://www.cepik.re.kr/>



9 772672 111001  
ISSN 2672-1112